

#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 국가 보물 지정 예고… 천년 불교문화 가치 재조명

임실군 신평면 소재 진구사지에 위치한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가 보물 지정 예고를 받으며, 임실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가 보물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77년 전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처음 지정될 당시 '중기사 연화좌대'로 알려졌으나, 이후 학술 연구를 통해 2003년과 2021년 명칭이 정정되며 그 가치가 재조명됐다. 현재는 진구사지 경내 보호각에 이전·보존돼 있다.

이러한 유산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진구사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구사(珍丘寺)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구려계 승려 보덕화상(普德和尚)이 전주로 내려온 이후, 제자 적멸(寂滅)과 의웅(義熊)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조선 태종대 전국 88개 자복사(寶福寺) 가운데 하나로 지정될 만큼 그 위상이 높았으며, 조선 후기 임실현 사찬읍지인 운수지(雲水誌)(1675·1730)에는 석등과 석불, 철불 등이 절터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후반을 전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구사지는 보물로 지정된 '임실 진구사지 석등', 전북도 유형문화유산인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등과 함께 당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광배와 오른팔 일부가 유실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좌상과 대좌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늘씬하고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와 섬세한 옷 주름 표현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준다.

특히, 팔각연화좌대는 면석부터 중대석, 상대

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양과 조각을 정교하게 새겨 통일신라시대 하대 불교 조각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조비로자나불은 화엄종의 주불로서 형상이 없는 진리, 곧 법신불을 상징하는 존재로 통일신라 말기 선종에서 강조하던 불성(佛性)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당시 불교사상과 종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이 불상은 고구려계 사찰에서 시작해 신라시대 선종 사찰, 고려시대 조계종, 조선시대 교종 계열인 중신종(中禪宗)으로 이어지는 종교사적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각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수용되고 계승됐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보물 지정의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약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을 거쳐 발도 이의가 없을 경우 국가 보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보물 지정 예고는 임실이 지닌 역사 문화 자산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신평면 진구사지 일대와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을 잇는 문화유산 벨트 조성을 통해 섬진강 르네상스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13)

## 모두 죽여!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박창수와 박주성은 일행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고 무리와 같이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바람은 차가운 냉기를 온몸에 지속적으로 뿌려왔고 몸은 달달 떨렸다. 남준과 명희는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부둥켜안고 시린 몸과 마음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다가 둘은 깜박 잠이 들었다.

마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 명희는 잠을 깼다. 갇혔던 사람들 중 일부가 창고에서 나오고 있었다.

“저기 좀 봐.”

명희는 남준을 흔들며 깨우며 말했다.

“집으로 보내주려는 걸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온 사람들은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 박대우 일행은 관솔불을 앞세워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데려갔다. 창고에 갇혔던 사람들 중 반절 가량이 밖으로 나왔다. 그 중에는 남준의 아버지 강병도와 어머니 신동태, 남준을 비롯한 동생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가 보자.”

남준과 명희는 산등성을 타고 내려가 한참 거리를 두고 관솔불을 따라갔다.

박의 일행과 묶인 사람들은 마을 앞산 골짜기로 들어갔다. 산 옆구리를 타고 남준과 명희는 그들을 따라갔다.

골짜기에 다다른 박의 일행은 묶인 사람들을 모두 일렬로 자리에 앉혔다. 박의 일행은 묶여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들 손에는 몽둥이와 도끼, 죽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모두 죽여!”

박대우가 컴컴한 허공을 향해 악마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질렀다.

“팩! 팩! 팩! 팩! 팩! 팩!”

“호옥!” “아악!” “옥!” “어억!”

죽창과 몽둥이, 곡괭이와 도끼를 맞은 사람들은 피를 검은 허공에 뿌리며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는 차가운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죽창은 뱀가죽과 가슴을 꿰고 들어가 사람의 장기를 여지없이 해집었으며, 몽둥이를 맞은 사람들의 머릿통은 장독이 깨지듯 바스러져 피와 뇌의 내용물이 검은 하늘로 흩어졌고, 곡괭이의 날은 사람들의 등과 뱃구레로 날아가 깊숙이 박혀 피와 살점과 내장을 질서 없이 컴컴한 허공으로 걷어냈으며, 도끼에 맞은 사람의 어깨쪽지는 단숨에 몸에서 분리되어 차가운 바닥에 고깃덩어리가 되어 내동댕이쳐졌다.

죽창과 몽둥이, 곡괭이와 도끼를 휘두르는 자들의 이마와 볼 살은 관솔불에 번들거렸는데 그들은 저 깊은 지옥에서 막 땅거죽을 뚫고 올라온 두역시나들이었다.

“네놈들은 무사할 것 같냐! 천지신명이 네놈들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야!”

차가운 밤하늘을 쥐어짜는 신동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남준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장면을 눈에 담고 있었는데, 장면 장면들은 납카롭고 뜨거운 인두가 되어 남준의 머릿속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에 흰 연기를 피워내며 깊은 화인으로 찍히고 있었다.

“으으으!”

남준의 목에서 괴성 같은 심음이 터져 나왔다. 명희는 얼른 남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남준은 온몸을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바스라질 것처럼 버둥거리며 꿈틀거렸다. 소리 없는 울음으로 흘린 눈물과 콧물, 침으로 남준의 얼굴은 뒤편이 되었고, 지켜보는 명희도 현 상황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짝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개돼지를 때려잡듯 저리 대할 수 있을까. 저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저들은 악귀이며 악마들이다.

남준과 명희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그 장면을 목도했는데, 세상의 이치에 사이를 맞춰놓았던 정신이 이탈한 탓인지 멍한 표정으로 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낮이 빠져 바라보고 있었다.

한차례의 살육이 끝난 뒤 일행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검을 확인하였고, 다시 창고에 갇힌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는 강용대의 어머니와 부인, 딸 둘이 끼어 있었다.

## 군산시,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 모집

군산시가 2026년부터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시민평가단을 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원은 총 30명 내외이다.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

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군산시로부터 문화예술·관광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이며,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82)로 문의한 뒤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

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평가단은 1월 중 교육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시작전시, 공연예술, 문학창작, 전통문화 등 군산시 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행사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시각에서 사업 내용의 적정성, 홍보 및 편의성, 관객 호응도 등을 보여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 공모전 ‘곽정우 작가 전시’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역작가 공모전으로 곽정우 작가의 ‘부재시리즈 - 사랑, 책, 드레스’ 전시를 시작했다.

곽정우 작가는 ‘사랑’, ‘책’, ‘드레스’라는 오브제를 통해 시대 속 진실의 실종, 감정의 단절, 존재의 흔적을 표현한다. 부유하는 하트(사랑)는 관계의 위기를, 내용이 비어 있는 책은 정보 과잉 속 진실의 부재를, 사람 없는 옷

은 사라진 존재의 기억을 상징한다.

작가는 “不在(부재)는 시대의 레퀴엠”이라며, 이번 시리즈가 단순한 결말이 아닌 사라진 것들을 위한 애도와 환기라고 밝혔다. 그의 작품은 폭력적 고발 대신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에게 존재와 진실, 사랑을 되묻는다.

‘부재시리즈 - 사랑, 책, 드레스’ 전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